논어 13편 자로 22장 · 원문·풀이

子曰：「南人有言曰：『人而無恆，不可以作巫醫』。「善夫！『不恆其德，或承之羞』」子曰：「不占而已矣。」

독음 · 자왈 남인유언왈 인이무항 불가이작무의 선부 불항기덕 혹승지수자왈 부점이이의

쉬운 풀이(요약) · 한결같음이 없으면 무당이나 의사도 될 수 없다. 덕을 꾸준히 지키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하니 점을 쳐서 알 문제가 아니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子 아들 자 / 曰 가로 왈 / 南 남녘 남 남 / 人 사람 인

有 있을 유 / 言 말씀 언 언 / 而 말이을 이 / 無 없을 무 무

恆 恒의 本字 항 / 不 아닐 불 / 可 옳을 가 가 / 以 써 이 이

作 지을 작 작 / 巫 무당 무 무 / 醫 의원 의 의 / 善 착할 선 선

夫 지아비 부 부 / 其 그 기 / 德 큰 덕 덕 / 或 혹 혹 혹

承 받들 승 승 / 之 갈 지 / 羞 부끄러울 수 수 / 占 점칠 점 점

已 이미 이 이 / 矣 어조사 의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